2002년 5월 31일 창간 독자센터 : (02)721-9841

metroseoul.co.kr

metro®

제5064호 2022년 11월 15일 화요일

[산업]
현대차
디 올 뉴 그랜저
사전계약 11만대
08

창간 20년 since 2002

Economy
매일 아침, 나를 키우는 메트로

코스피 2474.65 (-8.51)
코스닥 729.54 (-1.68)
금리(국고채 3년) 3.850 (+0.016)
환율(원·달러) 1325.90 (+7.50) 〈14일〉

유아 대신 고령층 겨냥 단백질·케어푸드 공략

고령화에 변화하는 유통업

① '분유=유아식' 옛말

국내 인구 저출산·고령화 심화
유업계, 갈수록 분유 매출액 줄어
단백질 등 영양식 제품 생산 주력

급식·식자재업계, 케어푸드 초점
연구개발로 고령화 사회 선제 대응

태어나는 아이의 수는 줄어들고,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대한민국의 고령화 속도는 출산율 감소 속도와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1960년 당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 비율이 2.9%에 불과하던 한국 사회는 2000년 노인인구 7%를 넘어서며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26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형적인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기업들은 바뀐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펼치고 있다. 메트로신문은 저출산 고령화 현상에 따른 유통업의 변화를 세 편의 시리즈를 통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국내 인구는 2022년 5200만명에서 2070년 3800만명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2년 17.5%에서 2070년 46.4%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출생아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2016년까지 40만명대였던 출생아 수는 지난해 26만500명으로 하락했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다. 만 15~49세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의 숫자를 뜻하는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1명을 밑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유업계는 신생아 분유 사업보다 단백질 파우더 생산에 열을 올리고 있고, 급식·식자재 기업들도 케어푸드와 노인 맞춤형 건강식단에 초점을 두고 있다.

국내 분유 시장 규모는 2017년 4291억원에서 지난해 3180억원으로 줄었다. 매일유업의 경우 2000년 초반만 하더라도 제조분유 매출액이 2000억원을 넘었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1079억원에 그쳤다. 전년 대비 11.5% 줄어든 수치다.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분유 매출액과 달리 생애 주기별 영양식 브랜드 '셀렉스'의 매출액은 2019년 200억원을 돌파, 2020년에는 500억원대에 이르렀으며 지난해 800억원을 넘었다. 매일유업의 전체 매출액 가운데 셀렉스 비중은 2020년 3%에 불과했지만 올해 7%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매일유업 '셀렉스'(위)와 일동후디스 '하이뮨'. /각 사

프리미엄 분유인 '산양분유'로 잘 알려진 일동후디스는 2020년 분유 제조 노하우를 살려 단백질 제품 '하이뮨'을 선보였다. 분말과 음료로 이뤄진 하이뮨은 출시 1년만에 매출 1000억원을 돌파했다. 올 상반기에도 하이뮨 매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50% 가량 늘면서 성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 단백질 제품 시장은 2018년 890억원 규모 수준에서 지난해 3430억원으로 3배이상 성장하는 등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업계가 유아식보다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단백질·노인식에 눈을 돌리는 이유다.

남양유업도 건강기능식품과 단백질 음료 등 신사업 발굴 및 확대에 주력하며 수익성을 제고해나갈 방침이다. 실제 지난해 건기식 발효유 '포스트바이오틱스 이너케어' 출시 이후 제품군 강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 이와 함께 단백질 브랜드 '테이크핏'을 운영 중이다.

급식·식자재 납품 기업들은 케어푸드 수요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케어푸드는 환자 또는 몸이 약한 노인 등을 위한 건강식을 의미한다. 국내 케어푸드 시장은 2011년 5104억원 규모였으나 지난해 2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규모가 더 커질 전망이다. 〈2면에 계속〉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공급측 혁신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

尹 대통령, B20 서밋 기조연설
글로벌 복합위기, 공급에 해법
민간주도·시장중심 전환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발리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에서 참석해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뉴시스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차 인도네시아를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의 글로벌 여건 속에서 민간이 중심이 되는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4일 발리의 누사두아 컨벤션센터(BNDCC)에서 열린 G20 회원국 경제단체와 기업 대표들이 참여하는 'B20 서밋 인도네시아 2022' 기조연설에서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한 기업의 역할, 그리고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글로벌 협력에 대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글로벌 복합위기는 과거와는 달리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진단했다.

이를 위해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과거 정부 주도의 정책 대응에서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측 혁신이 돼야 하며 민간 중심 공급측 혁신의 핵심은 디지털 전환에 달려있다고 제시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나 2020년 팬데믹 위기와는 그 양상과 대응 방식에서 다른 모습을 갖고 있다"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시스템의 붕괴로 인해서, 2020년 팬데믹 위기는 방역을 위한 봉쇄조치로 인해 총수요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세계 경제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공조 하에 금리 인하, 유동성 공급, 그리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조치가 있었고, 정부는 금융시스템의 복원, 백신의 공급 등을 주도해 위기에 대응했다"며 "하지만 이번 위기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충격이 크게 작용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팬데믹 회복 과정에서의 공급망 차질, 다양한 지정학적 갈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산비용은 올라가고 공급 역량은 축소됐다"며 "따라서 위기에 대응하는 해법 역시 공급 측면에서 찾아야 하면서 정부의 역할 또한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저는 늘 민간 주도, 시장 중심으로 경제시스템을 전환해 경제 체질을 강화함으로써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믿고, 이를 또 강조해 왔다"며 "기업의 투자를 제약하는 규제를 과감히 혁신하고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5면에 계속〉

/박정익 기자 pathfinder@

코픽스 4% 육박… 주담대 8% 시대 온다

오늘 10월 기준 코픽스 공시
연동 주담대 금리 8% 넘을 듯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금리 산정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가 올해 4%를 넘어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주담대 금리는 연 8%대에 진입해 차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오는 15일 10월 기준 코픽스를 공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월 코픽스는 전월 대비 0.44%포인트(p) 오른 3.40%로 2012년 7월(3.40%) 이후 10년2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번에 공시될 10월 코픽스는 4%에 육박할 것으로 업계는 전망하고 있다.

신규취급액 기준 코픽스는 은행이 매달 새로 조달한 자금을 기준으로 삼는 만큼 시장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최근 예대금리차 공시와 지난달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한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에 따른 예·적금 금리 인상분이 10월 코픽스에 반영된다.

5대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10월 말 정기 예·적금 잔액은 847조 2293억원으로 9월 말(799조 8141억 원)대비 47조4152억원 늘었다. 은행 정기 예·적금에 자금이 몰리면 은행 조달비용이 커지고 이것은 다시 대출금리 상승에 영향을 줘 코픽스가 영향을 받게 된 것이다.

15일 10월 코픽스가 공시되면 코픽스 연동 주담대 금리는 연 8%까지 치솟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 주담대 변동금리는 연 5.180~7.711%, 고정금리 연 5.180~7.711%다.

오는 16일부터 상승된 10월 코픽스를 적용시키면 주담대 상단은 8%을 넘어서게 되는 것. 주담대 금리가 8%를 넘어서게 되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4년 만이다. 〈3면에 계속〉

/이승용 기자 lsy26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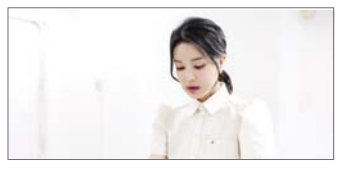
버스티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 尹대통령, 바이든과 손 맞잡고 "같이 갑시다" /사진 뉴시스

▲ 여야 원대, 의장 주재 회동서 국조·예산안 이견 평행선

▲ 경찰 상황관리관에 기동대 지휘권 부여… "연내 종합 대책"

▲ '폼나게 사표' 이상민 "기사화 될 것 인지못해… 안부 문자라 생각"



▲ 정의당, 한미일 정상회담 혹평… "국익·실리 없어"

▲ 野 "김건희, 오드리 헵번 코스프레" vs 與 "김정숙보다 백 배 좋아" /사진 뉴시스